



삼보순례 중 최대 난코스인 사자평에 오른 순례단 앞에는 부처님 광명이 밝게 비쳤다. 갈대들의 환영 속에 묵묵히 순례단은 행선을 이어갔다.

신심으로 423Km 64만步...걸음마다 불국정토

이상기온 극복, 안전사고 예방 만전

지원단 뒷바라지가 순례 성료 큰 힘

지난 자비순례와 달리 이번 삼보순례는 대부분 국도로 순례가 진행됐다. 인근 공단을 오가는 트럭 등으로 진행팀과 안전팀의 긴장도 높았다. 순례단 행렬은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차로 에스코트 하고, 앞뒤로 동국대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팀에서 행렬을 안내했다. 특히 안전팀은 도보로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순례단을 보호했다. 순례 구간에는 도로공사 중인 곳이 많고, 주변 산업공단에 출입하는 트럭들이 지나가기에 안전팀은 연신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며 행렬을 통제했다.

권영섭 안전팀장은 “더 많이 뛰어다니고 있다.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순례는 이상기온으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 속에 진행됐고, 종반부에는 급격한 기상악화로 비와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25~27도를 오가는 날씨는 순식간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이런 순례단 곁에는 지원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순례단이 지칠 때면 휴식지마다 물 등을 전달하며 힘을 보탤다.

장영욱 지원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단의 건강”이라며 “행사팀 숙영팀 공양팀 자원봉사팀 등 50여 명이 순례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순례단이 활용하고 남은 물품을 마을회관과 지역단체에 보시했다”고 소개했다.

휴식지마다 발이 아픈 이들과 다친 이들로 의료팀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명숙 의료팀장은 “치료를 받으시고 순례를 계속해나가는 모습에서 불자의 한사람으로 또 다른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순례단 앞뒤에서 안전을 살피는 지원단.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

동행취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입재해 10월 9일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회향한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은 신심으로 일군 불교중흥의 장이었다.

순례단의 누적이동 거리는 423Km. 순례단은 영호남에 걸쳐 5개 광역자치체와 12곳 기초자치체를 지나고 백두대간의 정맥들을 넘었다. 한반도 남쪽을 횡단하는 대장정을 오롯이 타고난 두발에 의지해서 이뤄냈다. 이 같은 여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를 중흥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코로나 상황에서 시름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9월 30일 송광사에 집결한 순례단의 의지는 결연했다. 상월결사 측은 재가자들에게 특별히 제작한 가사를 수여하고, 순례단 전원에게 행선을 위한 염주 등을 전달했다.

10월 1일 입재식과 송광사 참배는 불교쇄신의 기치였던 정혜결사처럼 상월결사가 새로운 시대 불교중흥을 위한 것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도 똑같이 살아있음을 환희심으로 체감하고, 한국불교 전통계승 순례, 불교중흥 순례, 사회통합 순례를 펼쳐 나가겠다.”

서원 속에 순례단의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순례단은 하루에 25~30km 가량을 걸었다. 첫날인 10월 1일에는 송광사를 출발해 곡성 일대를 걸었고, 둘째 날에는 섬진강변을 따라 구례에 도착했다. 2020년 자비순례와 달리 사찰 참배와 함께하기에 인근 사찰 방문도 이어졌다. 순례 둘째 날 걷기 일정 후 순례단은 원효·의상·도선·진각 국사가 수행한 수도성지 사성암을 참배했다. 수십km를 걸어 지친 상태에도 부처님 전에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이날 오후에는 사성암음악제 ‘길위에서 길을 찾다’도 진행돼 순례단의 피곤한 몸을 음성공양으로 잠시 잊게 했다.

셋째 날 순례단은 다시 섬진강을 따라 화엄사로 향했다. 국난극복의 의미도 지닌 순례이기에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호영 前 국회 정각회장(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등도 참여했다.

화엄사 각황전 앞 마당에서 순례단은 사자사삼층석탑 등을 참배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순례단이 묶는 날 화엄음악제에서는 ‘화엄’, 즉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진 듯했다.

어머니의 품같은 화엄사에서 다시 순례를 나선 순례단은 넷째 날인 4일 지리산 자락으로 접어들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으로 영호남 23개 시도에 걸친 산 속에서 순례단은 다시 한 번 순례의지를 다졌다. 지리산 천은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잠깐 소원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회주 자승 스

님도 순례단과 반야심경을 외고 불전을 놓았다.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과 순례단이 건강하게 원만 성취했으면 하는 마음 등 소원지마다 쓰여진 내용은 같았다.

천은사를 나온 순례단은 지리산 시암재를 올랐다. 넷째 날 회향지는 시암재 휴게소, 급경사로 순례 난코스 중 하나였지만 앞사람이 간 길을 따라 뒷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힘을 얻어 순례단은 시암재에 올랐다.

순례 다섯째 날, 순례단은 지리산 바람을 뒤로 해발 958m의 고도를 걸어 순례에서 가장 높은 성삼재(해발 1079m)로 향했다. 새벽 나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와중에 어느새 고갯길은 끝나가고 있었다.

순례 여섯째 날인 6일에는 실상사 참배가 진행됐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실상사를 참배한 순례단은 실상사가 운영하는 인드라마공동체와 같은 사부대중 공동체를 소개받았다. 생명평화탁발순례 등을 이끈 도범 스님은 순례단을 향해 “신심과 발원들이 한국불교의 새 활로를 여는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례단은 이어 함양 오도재를 넘었다. 해발 773m로 앞선 고개보다 낮았지만 구불구불한 굽이길이면서 계속된 오르막길로 구성된 순례단을 시험에 들게 했다.

순례단이 오도재 전망대에 이르자 가장 먼저 순례단을 반긴 것은 회주 자승 스님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남긴 계승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다’는 현수막이었다. 또 불보종찰 해인사에서 주지 현을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이 마중 나와 순례단의 고행을 격려했다.

순례단이 이번 순례에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산맥으로 인한 고갯길 뿐만이 아니었다. 이상기온으로 당초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간 늦여름 더위가 순례단을 힘들게 했다.

새벽 행선 이후 정오 무렵 더위와 싸우며 걸은 순례단은 숙영지 텐트에서 저마다 피로를 회복해

불교 중흥 원력, 불자대중 결집 국난 극복 희망, 지역사회 심어 10월18일 불보종찰 통도사 회향

야 했지만 달궈진 텐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 직원, 방장덕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포교사들의 응원과 지원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덟째 날인 8일, 잠시 내린 비를 맞으며 한 순례단은 거창 가조면에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의 환대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나와 응원과 격려를 보낸 것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결사를 주도한 자승 스님과 순례에 나선 사부대중에 감사의 마음을 전



송광사 입재식에서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순례단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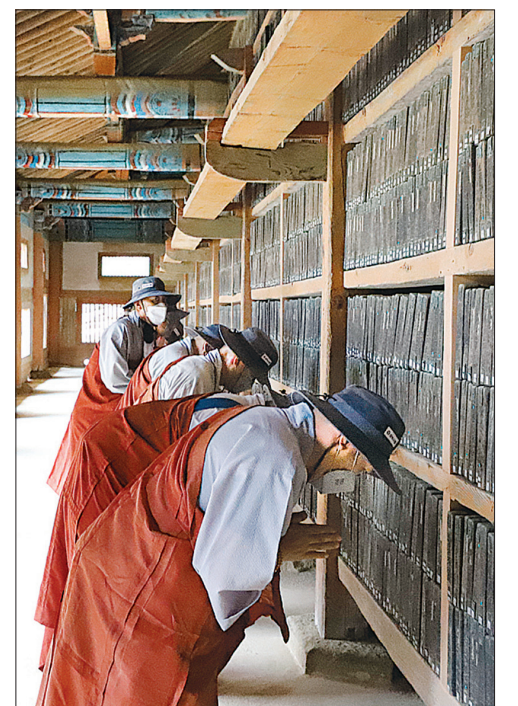
사성암에서 스토리텔링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순례단의 모습.



회주 자승 스님이 국사전을 참배하며 서원을 하고 있다.



순례 일정 중에는 화엄사 화엄제 등 사찰 문화행사도 열렸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참배하는 순례단의 모습.